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부님 일정

- * 10월 13일 : 미국 본당 견진 성사 집전
- * 10월 21일 - 23일 : 교구 사제 모임
- * 10월 24일 - 27일 : 꾸르실료 참석

● 주일 미사 집전

- * 10월 13일 : 오늘 주일 미사는 한국 외방 선교회의 김상균 다니엘 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시고 선교 지역을 돕기 위한 2차 헌금과 선교 후원금 모금이 있겠습니다.
- * 10월 27일 : 김기현 신부님(프린스턴 성당)

● 가을 야외 미사

- 일시 : 10월 20일(일), 오후 12시 30분 주일미사
- 장소 : Laurel Acres Park
1045 S. Church St, Mt. Laurel
- *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양로원 미사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3시>

양로원 미사가 17일(목)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말씀의 전례 어린이 교실

매 주일 미사에 '말씀의 전례 어린이 교실'이 운영됩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0 신자 주소록 발간

각 구역별로 신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아서 회장님께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41차 남성 꾸르실료 교육

- 일시 : 10월 24일(목) - 27일(일)
- 장소 : 뉴턴 수도원
- 문의 : 신부님 혹은 윤모니카 회장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 마틸다 구역 : 10월 16일(수) 오후 7시에 짬분식에서 있습니다. <김희겸 시몬 형제님 주관>
- 짬분식 : 2431 Church Rd. Cherry Hill, NJ 08002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알립니다!

-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마리아** 구역입니다.
-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비오** 구역입니다.
-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리아** 구역입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사목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낮 12시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나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뜨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사목회 : 추후 공지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제1독서	열왕기 하권 5, 14-17
화답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제2독서	티모테오 2서 2, 8-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복음	† 루카 17, 11-19
봉헌성가	212번 너그러이 받으소서
성체성가	496번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퇴장성가	59번 주께선 나의 피난처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연중 제28주일 10월 13일	연중 제29주일 10월 20일	연중 제30주일 10월 27일
제1독서	하국일 암브로시오	황선동 스테파노	박영희 마틸다
제2독서	김재숙 제노베파	황선동 스테파노	박민수 벨라도
봉헌자	정의환, 김충수	박민수, 이매향	이정지, 박영희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열 사람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전에 나병은 하늘이 내린 징벌로 여겨졌고, 전염을 우려하여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소외와 고독, 그리고 하느님께 받은 징벌이라는 사회적·종교적 인식까지 더해 나병 환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병이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치유해 주시려는 의도를 지닌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작용해야 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였 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는 동안에 치유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십니다. 열 사람이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치유는 아홉 명에게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에 머물고 말지만, 돌아와 감사를 드린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돌아보면 하느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치유를 받고도 돌아와 감사할 줄 모르는 아홉 명의 환자와 비슷합니다. 행복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기에 행복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우리 생활을 감사로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성근 사바 신부)

우리들의 기도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주일정성

< 10월 6일(일) >

봉헌금	\$295.00	
교무금	\$140.00	권수희(9), 최영숙(7-9)
예물봉헌	\$50.00	
매일 미사책 판매금	\$100.00	
Total	\$585.00	